


주제	사회문화 세특 주제 추천
가이드	<p>심리학과와 관련 지어 생각해보기</p> <p>문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에 따른 차이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p>


**문화란 무엇인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의 연구


A group of scientists placed 5 monkeys in a cage and in the middle, a ladder with bananas on the top.




Every time a monkey went up the ladder, the scientists soaked the rest of the monkeys with cold water.



After a while, every time a monkey went up the ladder, the others beat up the one on the lad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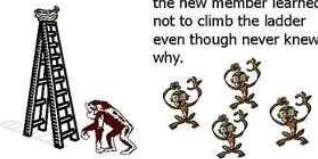


After some time, no monkey dare to go up the ladder regardless of the temp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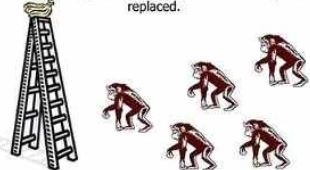


Scientists then decided to substitute one of the monkeys. The 1<sup>st</sup> thing this new monkey did was to go up the ladder. Immediately the other monkeys beat him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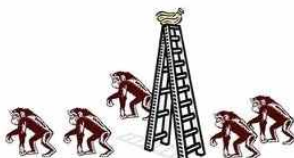
After several beatings, the new member learned not to climb the ladder even though never knew why.




A 2<sup>nd</sup> monkey was substituted and the same occurred. The 1<sup>st</sup> monkey participated on the beating for the 2<sup>nd</sup> monkey. A 3<sup>rd</sup> monkey was changed and the same was repeated (beating). The 4<sup>th</sup> was substituted and the beating was repeated and finally the 5<sup>th</sup> monkey was replaced.




What was left was a group of 5 monkeys that even though never received a cold shower, continued to beat up any monkey who attempted to climb the ladder.



If it was possible to ask the monkeys why they would beat up all those who attempted to go up the ladder....  
I bet you the answer would be...  
"I don't know - that's how things are done around here"  
Does it sounds familiar?



Don't miss the opportunity to share this with others as they might be asking themselves why we continue to do what we are doing if there is a different way out there.



심리학 분야에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밝힌 연구

1. 원숭이 5마리를 데리고 실험을 진행, 우리에 가둬 놓고 가운데 사다리를 둔 후, 그 사

다리 위에 바나나를 올려 놓음

2.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먹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려 하면 우리 천장에서 차가운 물이 쏟아짐

3. 원숭이들이 차가운 물이 쏟아진다는 것을 학습하고 사다리를 올라가려 하지 않게 되는데, 그중에 학습 능력이 느린 원숭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자 하고 이 원숭이를 올라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 나머지 4마리의 원숭이들이 그 원숭이를 구타하는 행동을 보임

4. 결국 5마리 원숭이 모두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게 됨

5. 이 상태에서 한 마리의 원숭이를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함

6. 새로운 원숭이는 사다리를 올라가려 하고, 나머지 원숭이는 이를 막기 위해 구타하는 행동을 보임. 새로운 원숭이는 영문도 모르고 맞게 되며, 차가운 물이 쏟아진다는 것을 모르지만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게 됨

7. 나머지 4마리 원숭이 중에서 한 마리를 또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함

8. 그러면 그 원숭이가 또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때 기존에 있던 3마리 + 먼저 바뀌어 들어왔던 1마리, 총 4마리가 구타하는 행동을 보임. 먼저 바뀌어 왔던 애는 왜 맞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왜 때리는지 모르지만, 때려야 한다고 배워서 때리는 것임

9. 이 과정을 반복하여 5마리 원숭이가 모두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되었음에도 아무도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지 않음

이것이 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이고 이어져 내려가는 과정임

문화에 대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하는 것이 우선임. 심리학에서 이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해낸 것

## 문화 차이에 대한 연구

사회문화에서는 문화라는 것을 한 국가 혹은 한 지역의 엄청나게 큰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문화라는 것은 작은 범위 내에서도 형성될 수 있는 개념임

한 조직 내에 존재하는 분위기나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행동들도 하나의 문화로 볼 수 있음

이 부분에서 차승아 학생이 어떠한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고 탐구를 할지 결정을 해야함

사회문화의 관점에서 문화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싶다면 조금 더 큰 범위인 국가 혹은 대륙 간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 좋을 것이고  
심리학과의 융합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면 큰 범위의 문화뿐만 아니라 작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문화에 대해서도 탐구를 하면 좋음

큰 범위에 해당하는 문화차이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하여 드릴테니, 혹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자료를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은영 (2009) : 선행연구에서 사회비교의 동기로 제안된 자기향상, 자기평가 및 자기고양 동기의 수준이 한국대학생들과 미국대학생들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사회비교의 동기와 그 충족수준이 현재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국내에서 제작된 사회비교의 동기 및 비교동기의 충족수준 척도를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얻었고,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요인구조가 동일한지 확인하였다. 문항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한 변인을 구성하였고, 한국과 미국 자료를 비교하였다. 결과를 보면, 미국대학생들보다 한국대학생들이 자기향상동기, 자기평가동기 및 자기고양동기 수준이 모두 높았는데, 특히 자기향상동기가 두드러지게 더 높았다. 자기향상동기의 충족수준과 자기평가동기의 충족수준도 한국대학생들에게서 더 높았다. 인생에 대한 만족감이나 삶에 대한 행복감을 반영하는 주관안녕의 경우 한국대학생들은 주로 자기향상동기에 의해서 영향받았지만, 미국대학생들은 주로 자기평가에 의해서 영향받았다.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였고, 제한점을 언급하였다.

김정운, 이장주 (2005)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독일대학생들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관련성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대학생 368명, 독일대학생 348명을 대상으로 우선, 각 문화의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여가활동유형,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만족도와 삶의 질과의 차이, 여가시간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여가동기, 여가태도에 있어 한국과 독일대학생 간에 차이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과 여가동기, 여가태도, 여가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대학생은 독일대학생에 비해 '놀이 및 오락'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가활동에 대해 비교적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오히려 '관광 및 여행'활동과 '사교'활동 그리고 '스포츠 및 건강'활동을 하는 경우, 여가만족도와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대학생들은 '스포츠와 건강'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활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며, 삶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동기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대학생들의 경우 휴식을 취함으로써 일에 대한 에너지를 얻고, 기분 전환을 하고자 하는 동기(휴식동기)가 독일대학생들에 비해 강한 반면, 자신의 능력을 개선하거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동기(유능동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태도에 있어서도 한국대학생은 인지적, 정서적 요인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독일 대학생은 행동적 측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은경, 서은국 (2009) : 본 연구는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문화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일상생활에서 정서를 더 많이 억제하고, 정서표현 억제를 덜 어렵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억제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에서도 문화차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정서억제가 외향성과 부적 상관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성실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기존의 연구들과 일관되게, 미국인 집단에서 정서억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친밀한 대인관계가 적으며, 주관적 안녕감 수준도 낮았다. 반면, 한국인 집단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의 표현보다 집단의 목표와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정서억제가 덜 부적응적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